



나는 교회가 무서워 숨어버렸습니다. 더 싸워볼 걸, 적어도 교회 안에서 공론화를 할 걸 하며 간혹 그 때를 후회합니다. 사람들은 목사가 얼마나 목회를 잘 이끌었는지, 얼마나 설교를 잘 했는지 떠들어댁니다. 그 이야기에 나는 나를 부정당하고, 내 삶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 타인에게 존경받는 목회자로 여겨진다니 구역질이 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는요.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을 강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모든 상황을 내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한국 교회에 나 말고 다른 피해자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도 끈질기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처럼 끈질기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들을 만나기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우리가 잘 살지는 못해도 끝까지 살아내는 모습을 하나님, 당신이 봐주십시오. 끝내 어느날 우리의 눈물이 다 마르고 가슴에 작은 행복들이 들어찰 때, 웃으며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회중: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평화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정의의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당신의 나라를 여기에

21      GM7                      F#m7                      Em7                      A7                      D2

사    랑    의    하    나    님    이    곳    에    오    소    서                      평    화    의    나    라    를    지    금    여    기    에

25      GM7                      F#m7                      Em7                      A#dim                      Bm7                      E2/G#

정    의    의    하    나    님    이    곳    에    오    소    서                      당    신    의    나    라    를    여    기    에

**| 페미니즘 백래시에 탄식하는 기도..... 새말 (만는페미)**

+ 여성혐오로 가슴이 찢어가는 이들의 하나님, 악한 가부장제에 순응하며 살 수 없는 우리 페미니스트들은 서로 연대하여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미투 운동을 일으키고, 낙태죄를 폐지하고, 텔레그램 성착취를 고발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득권을 조금도 놓치지 않으려는 성차별주의자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며 용감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지워버립니다. 자극적인 언어로 여성들의 삶을 곤두박질치게 만들며 깔깔댁니다. 교제살인으로 죽어가는 하나님. 존재가 지워져버리는 하나님. 발버둥쳐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어 조용히 죽음을 선택하는 하나님.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나는 하나님. 성별임금격차로 이등시민 취급받는 하나님. 독박육아에 시달리는 하나님. 당신의 딸들과 함께 마녀로 손가락질 받으십시오. 썩은 심령을 안고 광장에서 울고, 웃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끝내 우리는 '죄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사 42:4)'입니다. 여성해방 하나님나라를 이루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회중: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평화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정의의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당신의 나라를 여기에

**| 차별에 탄식하며 정의로운 공동체를 촉구하는 기도..... 이한빛 (한국YWCA연합회)**

+ 여성들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탄식을 주님께 드립니다. 너무도 쉽게 '여성'으로 이름 지어지는 출생의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눠지고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뎌야 합니까 주님! 우리는 이성적이지 못한 감정적인 존재로, 능력이 부족해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피를 흘리기에 부정한 존재로 낙인찍혀왔습니다. 우리는 대체 얼마나 더 이 시간을 견뎌야 합니까 주님! 태초에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채로운 형상을 인정하지 않지 않는 것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보다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의 이름으

로 집단을 나누고 개인을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였습니다. 존재들의 한계를 규정하였고 힘없고 약한 집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척 외면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여성, 그중에서도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경력이 단절된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폭력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잊히고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 아들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존재들이 동등하게 살아가는 안전한 공간을 이 땅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모든 낙인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존재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이 여정에 우리와 동행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회중: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평화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정의의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당신의 나라를 여기에

**| 여성차별과 소외없는 성경읽기와 설교를 촉구하는 기도..... 이경숙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주체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넓으신 지혜만큼이나 우리를 지혜로운 자들로, 주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자들로 불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 여성들이 주체로 살아간 적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내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남성들만이 제자의 자격이 있고 교회를 치리할 수 있다고, 성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수많은 해석들과 설교들이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억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여성들이 주체성이 없어 무조건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성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고, 주님의 말씀은 남성들만의 전유물도, 남성만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라, 우리 여성들에게 이러한 차별적인 세상의 논리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성서를 차별 없이 해석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하셔서, 성서와 교회의 모든 설교가 여성들을 치유하고 주체로 세우는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게 하옵소서. 여성들의 새로운 역할모델과 주체성을 일깨우는 해석과 설교를 더 많이 연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회중: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평화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정의의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당신의 나라를 여기에

**| 여성지도력의 평등한 실현을 바라는 기도..... 이현주 (움트다)**

†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다채로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의 교회들은 남성의 지도력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여성의 지도력은 불편하게 여깁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지도력을 세울 때 여성은 첫 번째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여성 담임 목사, 여성 장로, 여성 청년회장은 여전히 이례적이고 드뭅니다. 이러한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자매들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영향력이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가 아닌 힘들고, 고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항상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여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새로운 길을 여시며 오히려 여성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교회를 깨우고 시대를 깨우는 예언자적 목소리로 여성들을 귀히 쓰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현실이 지속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존재들을 통해 이 땅에 생명, 정의,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십니다. 이 슬프고도 기쁜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매들이 어떤 자리에 어떤

여성리더십으로 서더라도 놀라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지금 남성이 있는 모든 자리에 여성이 서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께 부름받은 누구나, 성별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기쁘고 당당히 섬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회중: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평화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정의의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당신의 나라를 여기에

§ 응답의 찬송 ..... 다같이

### 기도하는 이유

사 이현아 신화경  
곡 신화경 (2021)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in G major (one sharp) and 6/8 time. It consists of 30 measures across six staves. The lyrics are: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같은 크고 고상한 당신의 진리에 달을 수 없는 내 일상 앞에 때론 좌절하고 또 절망하지만 그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절망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소망을 내 마음에 품고 오늘도 기도안에 머물다 기도안에 머물며 버틸 수 있기를 진리 곁에 머물며 그 날을 기다리기를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평화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정의의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당신의 나라를 여기에 모든 것이 기도하는 이유 모든 것이 기도하는 이유'. Chords are indicated above the notes: D2, Bm7, G, D, D2, Bm7, G, A7, D2, Bm7, G, D, D2, Bm7, G, Em7, A7, G, F#m7, G, Am7, D7, GM7, F#m7, Em7, A7, D2, GM7, F#m7, Em7, A#dim, Bm7, E2/G#, Em7, A7, D, Em7, A7, D.

§ 말씀 읽기 .....마태복음 15:21-28..... 장근지(감리교여성지도록개발원)

21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띠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22 이 때 그 지방에 와 사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서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마귀가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고 계속 간청하였다.

23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 때에 제자들이 가까이 와서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 오고 있으니 돌려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24 예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25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께 다가와서 꿇어 엎드려 "주님, 저를 도와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26 예수께서는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며 거절하셨다.

27 그러자 그 여자는 "주님, 그렇긴 합니다마는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28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참으로 네 믿음이 장하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공동번역개정판]

§ 축복의 노래 ..... 비로소

§ 말씀 증언 ..... 사랑, 경계를 넘어서다 ..... 최규희 (움트다)

§ 말씀의 묵상 ..... 다함께

★ 찬양이 이어지는 동안 각자 묵상합니다.

★★ 오늘 예배를 통해 결단한 내용과 우리 시대의 '젠더폭력/성폭력'에 저항하고 연대하는 메시지를 나누어드린 리본에 적어 주세요.

WCC 11차 총회 장소에는 젠더폭력/성폭력에 저항하고 연대하는 메시지가 담긴 '연대와 저항의 벽(Waterfall of Solidarity and Resistance)'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성한 결단의 메시지도 연대와 저항의 벽에 전시될 것입니다. 젠더폭력과 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향한 목소리에 동참해주세요.

+ 그리스도께서는 여인들의 친구시며 고통 받는 자들의 위로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이웃을 괴롭히는 기만과 위선에 분노하고 우시며 하나님 나라를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혐오하던 이들을 벗으로 부르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죄인들과 마주보며 함께 먹고 마셨던 예수를 기억하고 그를 따라 살고자 합니다.

● 회중: 또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여성혐오로 가슴이 찢어가는 이들, 성폭력 피해자들, 부정한 존재로 낙인찍힌 이들, 가부장제의 죄사슬에 묶인 자들과 한상에 둘러앉으셨던 것을.

+ 또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따르고자 합니다. 소외되고 차별받는 자들과 함께 손가락질 당하며 멸시 당하다 모든 이의 구원을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 회 중: 이제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착취와 억압과 폭력,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것을.

+ ★ [연주와 함께] 한 분씩 나오셔서 쓰신 결단의 메시지를 색깔 천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 [다 넣은 후에] 다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 각자의 전통에 따라 주의 기도를 드리셔도 됩니다.)

● 회중: (여성들의 주기-도문)<sup>2)</sup>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당신의 뜻에 우리의 삶이 기억되고  
 우리의 삶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날 당신의 은총이 깃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양식을 욕심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 위해  
 죄 지은 자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 알아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힘 있는 자의 넘어짐을 작은 자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여성을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 유혹하는 존재라고 여기는  
 뿌리 깊은 혐오와 차별 속에서 우리를 속히 구하여 주십시오.  
 차별 없는 나라와 주변으로부터의 권세, 평화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이제 차별과 억압으로 뒤틀린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 회 중: 아멘. 우리로 하여금 분열 속에서 평화를, 미움 속에서 사랑을, 혐오 속에서 환대를, 무력함 속에서 소망을 짓게 하옵소서. 폭력과 불의,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사회에서 생명을 살리고 살려내는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 일에 온전히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2) 2021년 여성주의연합예배공동체에서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5주기 여성주의 연합예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_나는 오늘 여성혐오로 빼앗긴 양식을 되찾으러 간다> 예배에서 제안한 여성들의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기도문이 여성들에게 ‘주기’(empowering)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 ‘돌려-주기’,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는 영역에서 여성에게 ‘권한-주기’, 자신이 가진 것을 감사하며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기’ 등과 같은 여성주의적 역동과 실천을 기대해 봅니다.

★ 초를 들고 일어나 옆 사람에게서 불을 옮겨 붙인 후, 다시 옆 사람에게 불을 붙여줍니다.

##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9

독일노래

	F	C/E	Dm	Dm/C	
1. 그	선	한	힘	에	고
2. 그	촛	불	밝	고	따
요	히	감	싸	여	그
스	히	타	올	라	우
F	C/E	Dm	Dm/C	C	나
놀	라	운	평	화	를
리	의	어	둠	살	라
네	리	고	나	다	다
F	C/E	Dm	Dm/C	F	나
그	대	들	과	함	께
시	하	나	가	되	게
가	되	게	이	끄	소
네	서	당	나	당	당
F	C/E	Dm	Dm/C	F	나
그	대	들	과	함	께
시	하	나	가	되	게
가	되	게	이	끄	소
네	서	당	나	당	당
B $\flat$	F/C	C	F	F	그
그	대	들	과	새	날
신	의	빛	이	빛	나
는	이	밤	네	그	네
F	C/E	Dm	F/C	F/C	그
선	한	힘	이	우	릴
감	싸	시	니	그	어
뎀	주	주	주	주	주
B $\flat$	F/A	Gm	C	C	주
일	에	도	희	망	가
득	주	주	주	주	주
F	C/E	Dm	F/C	F/C	주
언	제	나	우	리	와
함	께	계	셔	하	하
B $\flat$	C	B $\flat$ /C	F	F	하
루	또	하	루	가	늘
새	로	워	워	워	워

§ [일어선재] 파송과 축복 .....최은영(한국여신학자협의회)

- + 예수께서는 외롭고도 고통스러운 수난의 길에 벗이 되어준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복음이 전해지는 어디 서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 우리도 이 여인을 따라 소외와 배제, 차별의 자리에 있는 여성과 약자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 + 하나님께서는 억압과 착취에 억눌린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해방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혐오와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울부짖음을 정의의 외침으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 + 성령께서는 분노하고 절규하는 여성들의 상한 마음을 보듬어 사랑과 연대로 꽃피우게 하십니다.
- 사랑으로 일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도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싸움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는 모든 여성들과 그들의 곁이 되어 보다 평등한 교회를 만들고, 다름을 이유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

※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동행 모임 예배 주제와 일시를 안내드립니다.

- 주제: “우리는 모두 이주민입니다”
- 일시: 4월 2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 아래의 예배에도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6주기 여성주의 연합예배  
“우리가 맹렬한 분노로 외치나니”(시 119: 53)
- 5월 24일 저녁 7시 30분, 보신각

※ 검은목요일 캠페인은 성폭력과 젠더폭력에 저항하여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가 여성연대 10년(1988-1998년)에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검은색 옷을 입는 공동행동이며 검은색은 저항과 회복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우리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어디에서든 성폭력과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폭력에 대항해 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